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 FRIEDRICH AUGUST VON HAYEK

분 류 | 인문, 사회  
제 목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지은이 | 애덤 테블  
옮긴이 | 이화여대 통역번역연구소  
지 면 | 276쪽  
정 가 | 18,000원  
판 형 | 신국판  
ISBN | 978-89-97046-68-3  
발행일 | 2013년 1월 30일

아산정책연구원

발행처 아산정책연구원 주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76번지 전화 02-730-5842(대) 팩스 02-730-5876  
담당자 최부일 주간 010-5714-2325/bic@asaninst.org

### ■ 저자에 대하여

애덤 테블 (Adam Tebble) – 애덤 테블은 런던 대학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정치이론을 가르치고 있다. 테블 박사는 현대자유주의 정치이론을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고전적 자유주의, 사회정의론, 문화와 정체성의 정치학, 대중커뮤니케이션 이론 등에 관심이 많다. 그는 런던 정경대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공공정책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브라운 대학에서 박사후 과정을 거친 다음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동 대학의 정치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의 저서로는 《F.A.Hayek》외에도 《인식론적 자유주의: 문화, 정의, 그리고 국가 Epistemological Liberalism: Culture, Justice and the State》(2013)가 있다. 그리고 <경제학과 철학 Economics and Philosophy>(2001), <정치학 이론 Political Theory>(2002, 2006), <정치학 연구 Political Studies>(2003, 2011), <국제 사회철학 및 정치철학 비평 Critical Review of International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2009) 등의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다.

### ■ 책에 대하여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F.A.Hayek》

이 책은 아산정책연구원이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아산 냉전자유주의 프로젝트”의 세 번째 책이다. 지난 2013년 2월 1~2일 양일간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한 컨퍼런스에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전문연구자들이 참여하여 뜨거운 토론을 나누었다. 또 이 책 《F.A.Hayek》의 저자인 런던대학 킹스칼리지의 애덤 테블 교수를 초청하여 한국어판의 출판기념회도 개최하였다.

---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폰 하이에크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서 경제학과 정치철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으며, 고전자유주의를 옹호한 사상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오스트리아 태생의 하이에크는 미국과 영국에서 보수주의가 부상하던 20세기 후반에 더욱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나는 왜 보수주의자가 아닌가? Why I Am Not a Conservative》라는 에세이에서 당대의 보수주의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많은 화제를 모았다. 그는 자신이 에드먼드 버크가 말했듯이 ‘휘그당 구파(Old Whig)’로 불리기를 더 선호했다. 그는 특히 일반 균형론(general equilibrium)과 계획 경제(central planning), 사회 정의론(social justice)에 관한 연구에서 많은 공헌을 했다. 정치이론 분야에서 하이에크의 뛰어난 저작 중에는 《자유헌정론 The Constitution of Liberty》이 있는데 여기서 그는 ‘제한 정부(limited government)’론을 주장했다.

#### ■ 존 메도우크로프트 (런던대학교 킹스 칼리지 교수)의 서평

F.A. 하이에크는 가장 중요한 20세기 사상가 중 한 명이다. 70년간 경이로울 정도로 왕성한 연구 활동을 이어오면서 경제, 정치, 철학, 법, 사상사, 과학철학, 진화심리학 등의 분야에 중요한 공적을 남겼다. 그가 남긴 공적 중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면 먼저 시장 가격의 인식론적 역할을 꼽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극도로 분업화된 현대 경제 속에 내재된 이익의 조정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자유 사회가 전체주의화되는 과정에 대한 기술, 사회정의를 공공정책의 합법적인 목표로 삼는 데 대한 비판, 의식적인 방향 설정이 아니라 자생적 질서에 의해 복잡한 사회 시스템이 진화해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 등이 그 예에 속한다.

이와 같이 그가 이룬 학문적인 공헌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를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핵심 사상가’ 시리즈(이 책이 포함된 사상가 시리즈, The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발간, 2010)에 포함시킨 점은 다소 의아할 수 있겠다. 그도 그럴 것이 하이에크는 그의 대표적 역작 《자유헌정론 The Constitution of Liberty》의 후기에서 자신이 보수주의자로 분류되는 것을 드러내놓고 거부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하이에크가 보수주의자였던 것은 아니다. 보수주의는 이상적인 사회론이라든가 다른 제도에 대한 비판적 기준이 되는 사회 제도를 표방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수주의자들은 다만 어떤 사회 속에서 그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유지·보전하려고 할 뿐이다.

보수주의의 핵심에는 문화적으로 상대주의적인 철학이 자리하고 있는 반면 하이에크는 고전적 자유주의 원칙과 제도의 보편성을 믿었다. 당대의 맥락 속에서 유럽과 북미 보수주의자들도 고전적 자유주의의 원칙과 제도가 유지되기를 바랐으므로 그들과 자신이 공통적인 명분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을 하이에크 자신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그러한 원칙과 제도가 정립되지 않았더라면 보수주의자들과 전혀 공통점이 없었을 것이란 점도 의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하이에크의 사상이 20세기 서구 사회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의 가치와 제도가 쇠락하는 것에 반대했다는 점에서 서구 보수주의적 전통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이에크는 철학적인 보수주의자는 아니었다. 그보다는 하이에크를 고전적인 자유주의자 또는 (그 자신이 선호했던 표현대로) 휘그당파로 지칭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며, 당대의 표현대로라면 자유지상주의적 전통에 들어맞는 철학자로 불릴 수 있다. 정당한 정부의 보편적 원칙을 믿었던 그에게 휘그당이 표방한 가치인 법의 지배, 합헌적으로 제한된 정부와 자유방임(laissez-faire)의 원칙은 그러한 보편적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정교하면서도 많은 저술을 남긴 하이에크 같은 사상가에 대해 철저한 해제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애덤 테블은 하이에크의 삶과 작품에 대한 뛰어난 기술로 힘든 도전을 훌륭하게 치러냈다. 테블은 하이에크의 일생과 시대라는 맥락 속에서 그가 이룬 학문적 공헌의 핵심을 잘 드러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하여금 20세기 가장 독창적이며 통찰력있는 사상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하이에크의 사상이 지닌 미묘하고도

---

섬세한 의미까지 생생히 포착할 수 있게 한다.

테블은 이 책을 통해 오늘날의 사상의 전통 확립에 가장 혁신적인 공헌을 한 하이에크의 사유를 이해하기 쉽고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에크의 사상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뿐만 아니라 이해가 깊은 학자들에 게도 소중한 필독서가 될 것이다.

## ■ 목차

### 감사의 말

### 1장 하이에크의 생애와 시대

서론

성장 배경과 초기 교육 1899~1918년

대학 교육과 초기 경력 1918~1931년

런던정치경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 1931~1950년

시카고 1950~1962년

유럽 1962~1992년

### 2장 인식론과 사회 이론

정신과 감각적 질서

사회 이론과 지식의 문제

이성과 사회적 설명

문화 진화론

### 3장 경제학, 국가, 사회정의

경제 이론과 실제

경제적 발견 과정으로서의 자유시장

사회정의

### 4장 정치와 법이론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법이론

하이에크의 정치·법 이론의 타당성

### 5장 민주주의와 모델 헌법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모델 헌법

### 6장 평가, 영향 및 현대 사회와의 관련성

학문적·정치적 영향

영향력의 쇠퇴인가?

현대 사회와의 관련성

주석

Bibliography